의안 번호	72

국도 79호선 북면-감계 구간 신규 진출입로 개설 및 도로 확장 촉구 건의안

(권순재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국도 79호선 북면-감계 구간
신규 진출입로 개설 및 도로 확장 촉구 건의안
(권순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2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의 원 : 권순재・감규상・구점득・김동엽・남재욱
남호준・류성국・박영주・박해정・백승규
서명일・이정희・전홍표・황점복 의원(14명)

1. 제안 이유

❍ 창원 북면 지역은 감계・무동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3배 이상 급증하였고 인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향후 폭발적인 교통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도심을 잇는 유일한 통로인 국도 79호선 감계지구 구간은 진출입로가 단 1곳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교통난에 긴급차량 통행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음

❍ 최근 『국도 79호선(북면~부곡) 신설 사업』이 확정되어 교통량 추가 유입이 예상되나, 정작 기존 병목 구간인 『국도 79호선 6차로 확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함

❍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신규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교통량을 물리적으로 분산하고, 장기적으로는 6차로 확장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와 창원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에 진출입 동선 이원화(대체 램프 개설) 즉각 추진 및 「제7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6차로 확장 사업 반영 촉구

❍ 『국도79호선 창원북면외감 교차로 개선사업』에서 지·정체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북면-창원 방면 가속차로 2차로 전면 확대·연장 시공 촉구

❍ 국토교통부와 창원시에 신규 진출입로 개설 및 도로 확장을 위한 종합 대책 조속 수립 촉구

3. 건 의 문: 붙임

4. 수 신 처: 대통령(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실(의전비서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국도 79호선 북면-감계 구간
신규 진출입로 개설 및 도로 확장 촉구 건의안

지난 2026년 8월 26일, 창원 북면과 창녕 부곡을 잇는 『국도 79호선 신설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북면-부곡 간 '온천대교'가 건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창원시가 북면 주민들의 오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부터 지속 건의해 온 『국도 79호선(동정~북면) 6차로 확장 사업』은 이번 제6차 계획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는 북면 주민들의 15년 숙원과 폭발적인 교통 수요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로 심히 유감스럽다.

감계지구와 무동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해 2013년 약 1만 1,300명이었던 창원 북면의 인구는 현재 4만 5천여 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더욱이 북면 동전산업단지의 기업 입주가 늘고, 동읍·북면 일대에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폭발적인 인구 유입과 교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이처럼 일대의 교통 수요가 나날이 폭증함에도 불구하고, 국도 79호선 의안교차로부터 감계·무동 지구를 거치는 편도 2차선 7.9km 구간은 여전히 창원 도심과 마산을 잇는 하나뿐인 출퇴근 통로이자 생명선이다. 더욱이 감계지구에서 국도 79호선으로 연결되는 진출입로는 단 1곳, '화천교차로' 뿐이다.

국도 79호선 감계지구 구간은 북창원IC로 진입하려는 차량까지 뒤엉키며 심각한 병목 현상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가 일상화되었으며, 무리한 차선 변경 등에 따른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3년 창원시의 『북창원IC 교통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최종 보고서』에서도 국도 79호선 상 화천교차로의 램프 용량 부족이 일대 지·정체의 핵심 원인으로 명백히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불과 수백 미터 남짓한 국도 79호선 외감교 일대에서만 7건(중상 1명, 경상 13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집계일 뿐, 실제 현장에서는 가벼운 접촉 사고만 발생해도 우회로가 없어 수만 명의 발이 묶이고 긴급 차량 진입마저 지연되는 치명적인 안전 공백과 교통마비가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국도 79호선의 새로운 연결축(온천대교)이 만들어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추가 교통량을 받아내야 할 기존 도심 구간의 병목을 방치한다면 주민들의 교통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향후 새로운 교통축 개통과 주변 개발에 따른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지금 당장 기존 국도 79호선의 교통 흐름을 분산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7.9㎞ 구간의 『국도 79호선(동정~북면) 6차로 확장 사업』이 당장 어렵다면,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감계지구와 화천교차로 일대의 진출입 동선을 분산하는 현실적인 대안부터 즉각 실행해야 한다. 신규 진출입로 개설은 도로 확장을 대신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특정 교차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돌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통 개선 방안이다.

최근 재개된 『국도79호선 창원북면외감 교차로 개선사업』만으로는 이 구간의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반드시 진출입로 이원화를 통한 화천교차로의 기능 분산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일대의 상습 정체와 구급차 진입 차단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의 안전과 생명권에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26년 3월에도 1,863명의 창원 시민이 신규 진출입로 개설을 촉구하는 등 대규모 민원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도로법」은 도로망 건설 및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책 마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도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아울러 창원시 역시 도심지에 교통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수립·추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창원시의회는 국도 79호선 북면-감계 구간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창원 시민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창원시가 그 책무를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화천교차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물리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진출입 동선 이원화(대체 램프 개설) 사업』을 국가 재정 사업으로 즉각 추진하고, 다가오는 「제7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도 79호선(동정-북면) 6차로 확장 사업』을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국도79호선 창원북면외감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정체 해소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북면-창원 방면 가속차로 구간을 현행 1차로에서 2차로로 전면 확대·연장 시공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창원시는 북면 일대의 폭발적 교통 수요 증가와 단일 진출입로가 초래하는 위험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각자의 책무를 다하여 신규 진출입로 개설 및 도로 확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026년 10월 1일

창 원 시 의 회